

衣裳學科의 教育課程과 就業

李 元 子
(建國大 衣裳學科)

I. 序 論

教育의 目的은 그 時代의 社會的·정치적·경제적·종교적·문화적 사상을 배경으로 변천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필요의 형태가 무엇이며 더 크게는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教育, 研究, 社會奉仕라는 大學의 세 가지의 사명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教育을 통하여 연구능력을 기를 수 있고 연구의 결과로 教育내용이 향상되어 그 결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이러한 사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요구와 학문의 발전 단계에 맞는 教育과정과 함께 인적 資源과 教育과 연구의 效果를 높이기 위한 시설자원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의 변천과 教育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教育기관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석비판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教育기관이 그 시대에 적절하고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教育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 학문

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生活양식이나 의식구조 등은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급진적으로 변모되었으며 특히 衣生活 양식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기성복의 발달과 수요증가를 볼 수 있다. 이는 섬유산업계의 고도의 지식과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인해 변모되었으며, 衣類分野에서 국제화, 다양화, 수준 향상에 부응하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의 人力供給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産業과 學問의 協力”이라는 세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에 대한 개념이 기술습득을 위주로 하는 전인교육(generalist)에서, Simpson¹⁾의 理論인 大學의 教育課程은 社會的 要求와 地域社會의 특성에 그리고 학문적 발달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전문인 양성을 위한 전문인(Specialist) 教育으로 전환함으로써만 대처할 수 있다.

현금 社會는 의류학분야의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전문교육의 미비, 직종개발의 소극성, 직업의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大學 衣裳學科에서는 이러한 社會實情을 감안

1) E. Simpson, "Curriculum Development Challenges in Home Economics," *Journal of Home Economics*, DEC. 1968.

하여 衣類産業 發展과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능력과 創意的 능력 및 知識을 갖춘 책임감 있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教育方向과 體系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衣裳學科의 教育課程이 就業과 연관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서울에 있는 6개 대학의 衣裳學科의 教育課程 현황과 就業現況을 조사하여, 과연 현행 교육과정의 편성이 앞으로의 의상학 연구 동향에 부합되며 취업에 적합한가를 검토·분석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교육적 측면에서 6개 대학의 대학요람을 참고로 교육목표, 敎科課程, 교과목 성격을 분석하였으며 졸업생의 취업현황, 교수요원 구성, 문제점들은 질문지에 의해 조사·분석하였다.

II. 教育的 側面

1. 衣裳學의 概念

의상학은 家政學의 한 전문분야에서 발전되어 왔다. 이는 가정학의 학문이 비대해지고 학문의 심도가 깊어짐으로써 각 전문분야로 세분화되는 과정에 형성되었다. 가정학이 人間과 環境과의 상호작용이다²⁾라는 개념에서 의상학도 역시 衣服을 매체로 한 人間과 環境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문이다. 따라서 衣服環境의 向上을 위해서 人間과 環境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衣裳學의 研究方向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의복을 매체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衣服과 人體’와 ‘人間과 環境’을 연구하는 두 분야로 나뉜다.

衣服과 人體의 분야는 人體를 둘러싸고 있는 自然環境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쾌적하고 기능적인 衣服製作을 목적으로 하는 自然科學的 側面의 연구분야이다. 人間과 環境의 分野는 衣服의 사회적 기능과 의복과 인간 행동과의 관계, 의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심리적 요인 등 사회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社會科學的 측면 연구와 또한 가지는 의복을 통하

여 美的인 表現을 위한 예술적인 탐구를 하는 예술적 측면 연구이다. 따라서 自然科學, 社會科學, 예술의 세 가지 면을 모두 포함한 綜合學問으로서의 特徵을 갖는다.

人間과 環境, 衣服 이 삼자간의 상호관계를 원활히 운영하여 衣服環境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는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衣裳學과 衣類學은 같다고 보며, 같은 方向으로 지향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의 세 가지 측면에서 教育內容이 어느 면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衣裳學과 衣類學은 분류되며 대학 소속에 따라서도 같은 衣裳學科의 명칭이라도 教育內容의 중점이 다르다. 즉 의상학은 衣服을 매체로 한 연구에서 自然科學的 측면보다는 예술, 사회과학적 측면이 더 많은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教育現況

(1) 衣裳學科 現況

1985학년도 현재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衣裳學科가 설치된 대학은 6개 대학으로 소속 대학, 대학원 설치 및 재학생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衣裳學科의 教育現況

대학명	소속대학	대학원(석사)	남학생비율
건국대	가정대학	의상학과	5.5%
국민대	조형대학	가정학과 의류전공	8.7
경희대	문리과대학	가정학과 의류전공	6.4
덕성여대	예술학부		
성균관대	가정대학	의상학과	
한성대	단과대학		9.7

가정대학내 소속은 2개교이며 문리과대학 1개교, 조형대학 및 예술학부 2개교이며 단과대학내 의상학과는 1개교이다.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의상학과로서 개설된 대학은 2개교이고, 2개교는 아직도 가정학과내 의류전공으로 되어 있으며 2개교는 개설되고 있지 않다. 박사과정은 어느 대학이든지 없다.

재학생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 200여 명이 가까우며 남학생이 상당수 진학하고 있고 국민

2) 이순원의 2명, “의류학 연구방향 제시를 위한 고찰,” 대한가정학회 제33차 총회 및 학술대회 연세초록, 1980.

대학교에서는 이미 남학생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의상학과의 설립 목적은 3개 대학만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의적 의생활 영위
- 이론과 실기를 겸한 패션디자인 창작 발휘
- 衣類産業分野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 등이며

이밖에 졸업후 취업형태를 제시하여 준 대학도 있다. 과거의 추상적인 표현으로서의 전문학문의 개념을 나타낸 것보다는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것으로 간주되나, 좀더 자세한 就業形態를 제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목적의식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專攻敎科目的 編制

6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개설된 전체 과목 중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양과목은 제외하였다. 전공과목은 교과내용상 김성련³⁾의 모형 교육과정 연구에서 분류한 5個系列別로 分類하여 전체 전공과목에 대한 계열별 과목수의 비율로 대학별로 비교하였다(〈표 2〉 참조). 또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과목수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이 저학년에서 전공필수를 개설하고 전공선택은 고학년에 편성하고 있다. 과목명에서 동일 과목명이라도 상이한 교과내용을 개설하고 있는 반면 교육내용이 같은 교과목이라도 명칭의 표현이 상이하고 다양하며 학문적 동향에 미루어 부적합하게 표현된 것도 있다.

〈표 2〉 계열별 교과목 비율 (단위: %)

대학	과목	복식 디자인	의복 구성	의류 과학	복식 사회	기타	과목수
전국대		30	34	12	16	8	36
국민대		50	28	6	10	6	32
경희대		24	40	18	14	7	28
덕성여대		32	42	3	13	10	31
성균관대		30	34	15	15	6	27
한성대		34	40	7	19		27
평 균		33	36	10	15	6	

가. 전공필수 교과목
설치되어 있는 교과목을 系列別로 분류한 것

을 대학별로 분석하여 보면 대학소속에 따라 큰 차를 보여 주고 있다(〈표 3〉 참조). 일반적으로 복식디자인과 의복구성에 치중하여 교과목을 설강하고 있는데 특히 조형대학 및 예술학부에 속해있는 대학은 服飾디자인 계열에 교과목이 편중되어 있으며 전공필수 교과목도 이 계열에 치중되어 있고, 衣類科學이나 服飾社會系列에는 전공필수 교과목을 전혀 두지 않은 대학도 있다. 전공필수 교과목의 특수계열 편중화 현상은 전공필수 교과목의 기초과목 성격상 위배되므로 적어도 4개 계열의 교과목 중 전공선택의 선수과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과목을 선정, 골고루 배분하여 설강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필수의 교과목수는 10~15개로 학교간 격차가 있으며 전공필수로서 과다한 科目數라고 간주된다.

〈표 3〉 系列別 專攻必須 科目數

대학	과목	복식 디자인	의복 구성	의류 과학	복식 사회	기타	전필	전선
전국대		4(7)	6(6)	2(2)	2(4)	1(2)	15	21
국민대		7(9)	4(5)	1(1)	1(2)	1(1)	14	18
경희대		1(3)	5(8)	2(3)	2(2)	3(1)	11	27
덕성여대		6(6)	6(7)	(1)	1(3)	(1)	13	18
성균관대		4(4)	4(5)	1(3)	3(1)	1(1)	13	14
한성대		1(8)	7(4)	2	(5)		10	17

나. 專攻選擇 敎科目

전공선택 교과목은 학생의 진로, 전공 및 취미를 살려 선택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고르게 배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교육과정의 폐쇄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分析된다. 전공선택과목의 敎科目數는 14~18개로 전공필수 교과목의 수와 별 차이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특히 같은 교과목에서도 대학별로 필수 및 선택이 각각 다르게 배정되어 있다. 또한 전공선택도 교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實情이다. 전공필수과목은 전공 기초과목의 성격을 가진 敎科目으로 의상학과의 소속이 어느 대학이든지 同一敎科目을 선정하게 하여야 하며 전공선택과목에서 계열별로 학교의 特性에 따라 선택하게 하는 것이 效果的인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3) 김성련의 2명, "가정학 계열학과의 모형 교육과정 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권 2호, 1982, pp. 1~35.

〈표 4〉 國內外 系列別 教科目比 (단위: %)

나라	복식 디자인	의복 구성	의류 과학	복식 사회	기타 과목
한국 (의상학과)	33	36	10	15	6
*한국 (의류학과)	23	27	28	10	12
*일본	14	10	44	16	14
*미국	38	13	16	28	5

* 김성련의 2인: "가정학 계열학과의 모형 교육과정 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권 2호, 1982.

다. 國內外 教育課程과의 비교

〈표 4〉의 資料分析에서 우리나라의 의상학과는 복식디자인과 의복구성系列에 중점을 두며, 의류학과와 일본의 교육과정에서는 衣類科學系列에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美國에서는 服飾디자인과 服飾社會系列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박명희⁴⁾ 조사에 의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衣類分野의 教育課程의 차이점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Fashion business 로 향한 교육과 취업활동이며, 종래 衣服製造業에 초점을 두던 것을 판매나 관리 등으로 教育課程을 전환하면서 Fashion-merchandising, Visualmerchandising, Textile-merchandising, Human behavior, Field-studies 등 衣類産業의 디자인 生産판매에 입각한 다양한 교과목 설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상학과와 남학생 진학률이 증가됨으로써 衣類産業에 부응될 수 있는 복식사회학, 특히 복식산업계열의 교과목 설정이 필요하며 특강과 현장실습으로 이러한 교과목의 필요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의류산업에 관계되는 부족한 교과목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의류산업계의 인사를 초빙한 특강이나 현장실습을 함으로써 산학협동을 이룰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장실습의 장소는 방학기간 의류관련 연구소나 의상실에 제한되어 있고 기업체 및 산업체의 현장실습은 전무상태이므로 공과대학에서의 현장실습과 같은 과정을 의류산업계에서도 적극 호응하여 주었으면 한다.

(3) 教授要員의 現況

大學教育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교수의 확보가 필요하다. 의상학

과의 학문영역이 전문화되어 감으로써 교수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최근 자료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강의시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표 5〉는 6개 대학의 교수요원의 현황이다. 적어도 계열별로 기본 교수요원을 1명으로 정한

〈표 5〉 教授要員의 現況 (단위: 명)

	복식 디자인	의복구성	의류과학	복식사회
전임교원	8	8	4	3
시간강사	20	12	5*	8*
확충할 전임교원	3			

* 대학원강사 포함

다면 한 대학에 4명 이상의 教授要員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면 4명 정원에 미달되는 전임교원의 數를 보여 주는 대학도 있으며 어떤 특정 系列에 편중되어 있어 전공 아님 계열의 강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은 교수요원이 있는 계열은 의복구성이며, 복식 디자인 계열은 전임교원보다 시간강사가 편중되어 있다. 이는 이 두 系列이 理論과 實技를 겸한 계열로서 두 가지 면을 충분하게 발휘시키기 어려우므로 시간강사로 充當하고, 또한 특수 교과목에는 시간강사가 대처해야 하는 점 등 때문이다.

〈표 6〉 理論과 實技科目의 比

	이론	실기 (시간당)	실기과목의 학점당 시간비
전국대	34.1	65.9	1.57
국민대	22.8	75.2	1.56
경희대	34.2	65.8	1.41
덕성여대	11.2	88.8	2.31
성균관대	48.1	51.9	1.40
한성대	29.7	73.3	1.31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理論과 實技時間의 차이는 크며 특히 實技科目은 학점에 비해 1.5~3배의 時間을 배정함으로써 理論과 實技의 학점차가 大學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이며 實技科目을 많이 실강한 대학일수록 전임교원 확보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강사가 있다. 또한 실기

4) 박명희 "家政學 전공자의 취업상태와 미래의 방향제시를 위한 연구," 「전국대학교 학술지」, 28/2, 1984.

과목이 많은 복식디자인, 의복구성제열의 전공 교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대학도 있다.

理論과 實技科目의 학점차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선택과목 중 실기과목의 기피현상을 보여 주고 있어 바람직한 교육과 학생지도를 위해서도 理論과 實技의 학점차를 없애야 할 것이다.

Ⅲ. 就業의 側面

1. 就業方向

변모하는 오늘의 사회, 특히 의류산업 사회에서 衣裳學科 졸업생이 사회에 봉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衣裳學 전공자의 직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의 질문에는 Throne⁵⁾의 가정학 전공자의 취업분야를 예르 들 수 있는데, 그는 교육과 기업의 두 유형을 말하였다. Lippeat와 Brown⁶⁾은 신제품개발, 교육 및 상담, 기업체 고용의 세 분야로 나눈다고 하였다. 가정학의 한 전문영역인 의상학의 졸업자의 전문직업영역은 대체로 4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직 및 대학원 진학, 연구기관의 연구원, 의류산업체의 전문 디자이너, 의류산업체의 판매직이다.⁷⁾

美國내에서도 衣類分野의 전공자의 HEIB(Home Economics in Business)의 참가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그들의 役割도 종래의 남성 독점인 다양한 관리, 구매부, 편집부, 연구원, 생산관리, 직물 Coordinator, 시장조사부 등이며, Strain⁸⁾ 등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조정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 就業現況

2년간의 衣裳學科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표7>에 의하여 보면 패션 디자이너가 가장 많은 율

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패션 디자인이 나보다 Fashion business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취업형태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디자이너의 업무가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으로 본다. 즉 미국에서는 디자인 업무 그 자체만을 디자이너가 담당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패션정보 수집, Fashion coordinator, 商品企劃, Sample 製作, 生産指示에 이르는 종합적 업무를 도맡아 하므로 미국내 Fashion-business와 비슷하다고 본다.⁹⁾ 우리나라에서는 衣裳學科의 취업을 위해 衣裳觀美적을 전문직종으로 개발해야 하며 衣裳學 졸업자가 직업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른 취업형태로는 교육계를 들 수 있다. 1984년 입학생부터 중·고교 교직 이수가 불가능하므로 교직의 취업은 거의 할 수 없으나 대학원 진학자의 증가로 인해 전문적인 교육자는 증가될 것으로 본다. 또한 정부의 의류산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류관리사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의류관리사의 직종을 새로운 취업형태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의류산업체에도 CAD/CAM의 컴퓨터 活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computer fashion design이 실용화됨으로

<표 7> 就業現況

내 용	연 도		평 균	
	'84	'85	'84~'85 ('85현재)	'79~'82
졸업생	199	248	223	170
진학자(%)	5.0	3.6	4.3	5
취업(%)	51.2	37.9	44.5	46
교육계/전취업자(%)	0.9	3.1	2.0	8
디자인계/전취업자(%)	44.7	70.2	57.4	71
섬유산업계/전취업자(%)		7.4	3.7	8
일반사무직/전취업자(%)	5.5	7.4	6.4	10

- 5) E. Throne, "Thewo faces of Home Economic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79, 3, 127~134.
- 6) S.F. Lippeat, and Brown, H.I. Focus and Promise of Home Economics; A family-oriented Perspective N.Y.: Mcmillan Publishing Co. 1965.
- 7) 이은혜의 1명, "가정학 교과과정의 내용 선정 및 조직화를 위한 理論的 探索," 「대한가정학회지」, 21권 3호, 1983.
- 8) R.W. Strain, "Business Values the Home Economics," Journal of Home Economics, 1970.
- 9) 빈명숙, "패션디자이너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세 衣裳學 졸업자의 좋은 취업업종이 되었는데, 이 분야를 교육과정들에 편성시켜야 하며 특강 및 현장실습으로도 방법을 터득케 해야 할 것으로 본다.

IV. 結 言

衣裳學科의 현행 敎育課程이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의 國際化, 多樣化로 변모하여 가는 衣類產業社會에 고도의 知識을 갖춘 전문인 人力供給에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교육현황과 취업현황을 分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① 衣裳學科의 敎育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취업과 연관된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

② 전공필수과목은 대학간 특정제열에 치중되지 않고 고르게 배분한 전공 기초과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理論과 實技科目의 학점 격차를 줄여 實驗實習 위주의 실기교육을 권장해야 한다.

④ 의상학의 고급 전문교육인 양성을 위해 대학원에 의상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개설이 시급하다고 본다.

⑤ Fashion-business, 의류관리사, computer 活用을 위한 전문인 등의 취업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산학협동을 이룰 수 있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개설할 수 있도록 교육계에 건의하며 산업체의 적극적 지원을 요망한다. *

〈投 稿 案 內〉

“大學敎育”誌 第17號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敎育에 관한 論說, 각종 學術情報, 現場提言, 體驗談 및 新刊紹介 등으로 다음에 맞는 글

① 論 壇

② 學科別 敎育課題

③ 나의 體驗

④ 現場提言

⑤ 敎育資料

⑥ 新刊紹介

2. 枚 數—200字 原稿紙 35枚, 45枚 또는 54枚(⑥은 14枚 또는 25枚)

3. 期 限—1985年 7月 20日

4. 稿 料—一枚當 2,500원(채택된 原稿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敎育協議會(783-3891, 3067)

6. 附 記

① 國漢文을 混用하지 漢字를 制限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